광주·전남 일자리 질 갈수록 악화…상용직 줄고 임시직 증가

4월 고용동향…취업자 수 각각 1만5000명·8000명 감소

대부분고용지표 악화…농림어업·제조업 분야 큰 감소폭

광주·전남지역의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가 줄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자리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 수는 7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78만7000명) 대비 1만5000명(1.9%)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달 광주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45만명)보다 1만7000명(1.6%) 감소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000명(19.1%) 늘었고 임시근로자도 2000명(1.7%) 증가한 13만8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취업자 수 역시 101만6000명에서 100만8000명으로 8000명(0.8%) 감소했다.

특히 전남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질이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남지역 상용근로자는 39만4000명으로 1년전(41만8000명) 대비 2만4000명(5.6%) 줄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6.7%, 1.1% 늘었다.

이 밖에 대부분의 고용지표에서 광주는 악화됐고, 전남은 봄철 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계 등 일부 업종이 선전하며 고용 악화를 일부 방어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4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p)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3.5%로 0.8%p 상승했다.

지역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3000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1000명)이 소폭 증가했지만, 농림어업(-5000명), 제조업(-5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4월 기준 66.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지만, 실업률도 0.4%p 하락한 2.0%를 기록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했다.

전남은 특히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성별 격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남지역 남성 고용률은 0.9%p 상승한 73.4%를 기록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2.0%p 하락한 59.1%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지역 주력 산업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2만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소매·숙박·음식업(7000명), 제조업(6000명), 건설업(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2000명) 등은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

K-BPI 평가 8년 연속 1위

광주은행은 1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한상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전무 등 관계자,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K-BPI는 국내 대표 브랜드 평가지표로,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만28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해 각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은행은 신뢰성, 가격 프리미엄, 이용대비 노력가치, 타인 추천의향, 의미전달성 등 로열티 항목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광주은행은 K-BPI 평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를 기록했다.

광주은행이 로열티 항목에서 고평가를 받은 것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으로서의 기반을 지키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및 포용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토스뱅크와 협업해 은행권 최초로 공동 출시한 '함께대출'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올해 초에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외국인 금융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역 금융의 글로벌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올해까지 8년 연속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지역민의 필요에 따라 제 때에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상생활동들이 광주은행 브랜드 가치 상승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성장하고, 경쟁력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초슬림폰 '갤럭시 S25 엣지' 사전판매 시작

통신사 공시지원금 최대 25만원

이동통신 3사가 14일부터 사전판매를 시작하는 삼성전자의 초슬림형 모델 갤럭시 S25 엣지〈사진〉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2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엣지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2000~25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28만7500원이다.

KT는 요금제에 따라 6만~25만원을 지원해 최대 공시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다. SK텔레콤은 8만~24만5000원, LG유플러스는 5만2000~23만원이다. 다만 이는 예고된 공시지원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 사전판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출시일은 23일이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신규가입이 중단된 기간에는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서만 엣지 예약을 받는다.

사전 판매기간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엣지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엣지는 '티타늄 실버',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아이스블루'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256GB, 512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각각 149만6000원, 163만9000원이다. /김해나 기자 khn@

매각실패 MG손해보험 신규영업 정지

보험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해보험의 신규영업이 정지되고, 기존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치면,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적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연합뉴스

독일 '아우토 빌트' 평가 기아 EV9, 볼보 제치고 7개 항목 우수한 평가 받아

기아 EV9.

기아 EV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의 전동화 대형 SUV 비교 평가에서 경쟁차 볼보 EX90을 제치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4일 기아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독일에서 발행되는 아우토 빌트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매체로, 이들의 평가 결과는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평가는 EV9 GT-line(AWD)과 EX90 트윈 모터 AWD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편의성·파워트레인·주행 성능·커넥티비티·친환경성·경제성 등 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EV9은 바디, 파워트레인, 경제성 등 3개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총점 589점으로 EX90(571점)을 앞질렀다.

EV9은 구동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도 전반적인 주행 품질, 응답성, 최고 속도, 전비가 EX90을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아 관계자는 "아우토 빌트 평가를 통해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기반 전동화 기술력과 EV9의 상품성이 다시 한번 입증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8

정치테마주 4개중 3개꼴 30% 폭락…"추종매매 자제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 4개 중 3개꼴로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정치테마주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치테마주는 대다수가 시장 대비 고평가된 중소형주로, 주가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높아 이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정치테마주 60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지난 9일 기준 고점 대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전체의 72%에 달했다.

일부 종목은 테마 소멸과 함께 주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치테마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시장 전체 평균인 67%보다 월등히 높은 87%에 달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 우려도 더욱 큰 상황이다. 실제로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분석 결과 42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기부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4조원 투입

1조4000억 '상생페이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중기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추경 집행을 통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창업 9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추경 4조8000억원 중에서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1조4000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추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가속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 사업 등도 중점 추진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퀄컴, LG 등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개소하고 글로벌 펀드를 연내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개시한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경제살리기, 정책플랫폼」 발대식

광주전남 중기중앙회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플랫폼 발대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우리지역 경제살리기, 정책플랫폼' 발대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18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회와 단체가 참여했다.

정책플랫폼은 광주·전남 경제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책플랫폼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정책플랫폼을 통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40.57 (+32.15)
↑	코스닥	739.05 (+7.17)
↓	금리 (국고채 39년)	2.351 (-0.019)
↑	환율 (USD)	1420.10 (+4.10)

〈오후 4시 49분 기준〉